

도로표지용 도료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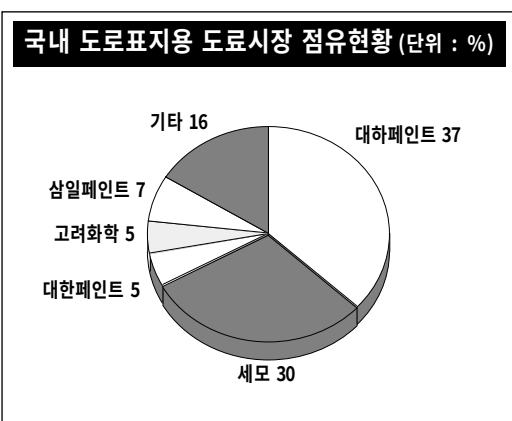
공급과잉속 원자재부담 확대 ... 경도화학 신규참여

도로표지용 도료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로표지용 도료시장은 후방산업의 침체속에 수요증가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도로표지용 도료 생산량은 93년 대비 5% 증가한 1만3551kl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마저 기업간의 과잉경쟁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도료가격은 융착식이 Kg당 400원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건조형은 Kg당 1200~1400원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도로표지용 도료의 가격은 유통구조의 특성상 인상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표지용 도료의 주수요처가 경찰청과 도로공사이고 입찰방식으로 공급선이 결정돼, 효과적인 가격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94년 한해동안 이산화티타늄은 300달러의 가격상승이 진행되었으며, 석유수지도 수입다변화 품목에 묶여 일본공급량이 줄자 가격이 톤당 1200달러까지 상승, 도로표지용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페인트기업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 도로표지용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19개 기업으로 이 가운데 대하페인트, 세모, 삼일페인트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대기업으로는 대한페인트링크, 고려화학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95년부터 경도화학이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를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올 하반기 시장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경도화학이 시장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제품의 경쟁력으로 이미 공진청에서 NT마크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5년 도로표지용 도료시장은 향후 KS규격에 글라스비드의 혼입량을 명시해야 함에 따라 새로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실정이다.

글라스비드는 빛의 반사를 유도하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그동안 도막표면에만 2mm정도 얇게 살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차선을 도색할때 글라스비드의 함유량이 20%인 도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5/4/3>